

에버랜드 “테마파크서 초대형 방탈출 게임”

유행 에버랜드가 11월 동안 미국을 모티브로 조성한 락스빌 테마존에서 온·오프라인 초대형 방탈출 게임을 진행한다. 홈페이지나 현장에 설치한 QR코드를 통해 ‘락스타로 살아남기’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제시되는 추리 미션을 테마존 곳곳의 단서를 바탕으로 풀면서 즐기면 된다. 게임 중간에 더블락스핀, 킷트위스트 등 락스빌 어트랙션 탑승 미션도 있다.



창립 52주년 맞은 거제 거봉백병원

“대규모 투자 통해 내년 500병상 거점 병원 재탄생”

어제 창립 52주년 기념식 열려 시브리 박사, 거제 의료발전 큰 기여 만성적 경영난에 백용기 회장이 인수 연간 21만 환자 찾는 거점 병원으로 순천시에 1000병상 의료타운 조성



백용기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내외빈들이 거봉백병원의 창립 52주년을 축하하는 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제공 | 거봉백병원

거봉그룹(회장 백용기)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거봉백병원은 1일 오후 5시 경남 거제시 상동동 거봉백병원 소천의전당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장, 변광용 거제시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명동성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2주년 기념식을 갖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1969년 미국인 선교사이자 외과의사인 존 시브리 박사가 거제시 하청면 실전마을에 ‘거제지역사회개발 건강원’(실전병원)을 세우고 의료 낙후 지역에서 인술을 펼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백 회장의 이사장 취임 22주년 축하를 겸해 열렸다.

백 회장은 기념사에서 “병원 인수가 무리라며 모두 말했지만 성공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었다”며 “병원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거제시를 비롯한 협력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존 시브리 박사의 병원 설립부터 거봉백병원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거제의 씨앗’의 제작 발표회도 열렸다.

병원 설립 당시 인구 12만 명의 거제시 중 하청, 연초, 장목 등 북쪽 3개면은 3만 명이나 됐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



1969년 거봉백병원의 전신 실전병원을 세운 미국인 선교사이자 외과의사 존 시브리 박사(가운데).

는 무의촌(無醫村)이었다. 시브리 박사는 외국 기독교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짓고 국내 최초의 농촌형 지역의료보급인 ‘거제지역사회보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거제 의료 발전에 선구

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소수 의료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경영난에 시달려야 했고 1997년에는 외환위기까지 겹쳐 병원이 존폐 위기에 몰리자 1999년 백 회장이 인수했다.

이후 거봉백병원은 3000억 원이 넘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 연간 21만의 환자가 찾는 300병상의 거점 병원으로 성장했다. 자산가치 4000억 원이 넘는다. 현재는 전문의 32명, 직원도 500명이나 된다. 응급실, 수술실 등 최신키 의료시설에 대학병원 수준의 건강검진센터를 갖췄다.

거봉백병원은 또 본관 신축을 진행하는 등 내년에는 500병상의 거대 병원으로 재탄생한다. 옛 장례식장을 철거한

뒤 최신키 시설을 갖추고 장례의 품위를 느낄 수 있는 ‘소천의전당’을 완공하고 ‘명품 장례식장’을 선보인다. 지상 1층 지상 3층 연면적 4300㎡(1300평)의 소천의전당에는 국내 최고 시설의 11개 빈소와 게스트 하우스까지 갖췄다.

거봉백병원은 3000명용 수용하는 야외음악당과 300석의 공연전시 및 힐링공간인 ‘락희만홀’을 갖추고 문화예술인 초청 공연을 정기적으로 여는 등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거봉그룹은 전남 순천시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첨단 의료연구시설과 1000병상을 갖춘 ‘락희만 의료융합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김재복 기자oldfield@donga.com

KT, 통신장애 보상안 “15시간 요금 감면”

1회선당 1000원 가량…소상공인은 10일분 요금 보상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분의 요금으로 정했다. 소상공인에게는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한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고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TV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에는 태블릿과 스마트워치 등 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되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TV형 전화용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이동전화 가입자 보상액은 1회선당 1000~2000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경우엔 일반 인터넷요금 2만5000원 가량인데, 10일 기준을 적용하면 7000~8000원의 보상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원만한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2주간 운영한다. KT는 또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히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구현도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시는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삼성전자, 창립 52주년 기념식 개최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삼성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초일류 100년 기업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삼성전자는 1일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창립 5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는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김기남 부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3분기 삼성전자는 괄목할 실적을 달성했다”면서도 “앞으로 10년간 전개될 초지능화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초일류 100년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자문해 봐야 할 때다”고 말했다. 또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빅뱅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며 “고객과 인류 사회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마음껏 꿈꾸고 상상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대상그룹, 창립 65주년 맞아 새 CI 공개



대상그룹이 1일 창립 65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과 혁신 의지를 담은 새 CI(사진)를 공개했다.

65년간 지켜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이라는 핵심 가치를 고수하면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사람과 자연 모두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새 CI의 심볼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은 나무를 형상화한 형태로 제작했다. 사업의 근간이 되는 자연을 기반으로 탄생한 제품과 서비스가 다시 인간과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상징한다.

영문 사명 DAESANG의 각 알파벳을 둥근 형태의 소문자로 표현해 고객 및 미래와의 연결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나타냈다. 다채로운 색상과 친근한 체제를 사용해 고객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최성수 대상홀딩스 대표는 “65주년을 발판 삼아 100년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CI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 신격호 탄생 100주년, 창업주 정신 기리는 롯데

신동빈 “창업주 도전·열정 정신 계승” 롯데 역사 자료부터 집무실 재현까지 회고록 출간…장학금 수여식 등 진행

롯데가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업적과 철학을 재조명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자 했던 창업주의 생애를 다양한 각도에서 돌아보도록 할 계획이다.

●롯데월드타워, 흉상과 기념관 마련

먼저 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흉상을 설치하고, ‘상전 신격호 기념관’을 오픈했다. 1층에 설치한 흉상은 좌대를 포함해 185cm 높이의 청동으로 제작했으며, 흉상 뒤에는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념관은 5층에 680㎡ 규모로 조성했다. 창업주가 일궈낸 롯데의 역사를 미디어 자료와 실물 사료로 전시한다. 창업주의 일대기를 포토그래픽으로 구성했으며, 초기 집무실도 재현했다. 집무실에는 ‘화려함을 멀리하고 실리를 추구한다’는 뜻의 사자영어



신격호 창업주 흉상에 헌화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제공 | 롯데

인 ‘거화취실(華華就實)’, 한국 농촌의 풍경이 담긴 그림이 액자로 걸려있다.

창업주가 생전에 신었던 낚은 구두, 펜과 수첩 등의 집무 도구, 명함과 파이프 담뱃대, 롯데제과 최초의 껌 ‘쿨민트’, 롯데백화점 초기 구상도, 롯데월드타워 기록지 등을 볼 수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은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고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

했다”며 “롯데는 더 많은 고객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새로운 롯데를 만들어가는 길에 창업주가 몸소 실천한 도전과 열정의 DNA는 더 없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창업주의 정신을 깊이 새기면서 모두의 의지를 모아 미래의 롯데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청년 창업가·유동학자 등에 지원금
신격호 창업주 탄생 100주년 당일인 3일

에는 회고록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의 출간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롯데벤처스는 ‘1세대 글로벌 청년 창업가’인 창업주의 도전 정신을 잇기 위해 우수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선발된 스타트업 13개사를 대상으로 총 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수여하는 행사를 연다.

또 한국유동학회는 제3회 상전유동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유동학 관련 연구를 통해 유동정책과 산업발전에 공헌한 학자들에게 상금을 준다. 상전유동학술상은 창업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롯데그룹이 후원한다. 롯데학재단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자녀 110명에게 총 1억2000만 원 규모의 나라사랑 장학금을 수여한다.

오후 7시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창업주의 꿈과 도전, 열정을 기리는 기념음악회가 열린다. 창업주 헌정 영상의 음악은 창업주 생전의 애청곡으로 알려진 가곡 ‘사월의 노래(박목월 작시)’를 가수 김현철이 편곡했다. 또 조은화 작곡가가 신격호 창업주를 모티브로 작곡한 ‘신격호 진혼곡’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초연된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